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Social Network and Social Services Accessibility of Migrant Workers

이 수 상(Soo-Sang Lee)**

장 임 숙(Im-Sook Jang)***

목 차

| | |
|--------------------------------|--------------------------------------|
| 1. 서 론 | 3.3 조사의 대상 및 방법 |
| 2. 이론적 고찰 | 4. 부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연결망 분석 |
| 2.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 | 4.1 부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체계 |
| 2.2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체계 | 4.2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실태 |
| 2.3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결망 | 4.3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연결망 |
| 3. 연구의 설계 | 5. 결 론 |
| 3.1 연구의 문제 | |
| 3.2 측정도구의 설계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실태와 연결망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결망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주노동자가 사회적 욕구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는지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파악한다. 분석결과,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욕구상황에서 공식적인 지원조직에 접근하기 보다는 친구 및 직장동료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집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적인 지원조직 간의 연결망에서 공공도서관은 다른 지원조직들과 전혀 연계를 맺지 못하고 지식과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efficacy of social services for migrant workers. First, it examines migrant workers needs and how they choose to fulfill these. Second, this study grasps about how they can connect the social services and what constructive peculiarities social networks they have by using SNA(Social Network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migrant workers rely more on informal support groups such as family, friends, co-workers, etc. rather than formal support networks, e.g. those provided by the state. This tendency is demonstrated especially, Libraries as formal supporting organization have no connection related with other organizations. It shows that they have role limited as a supporter of giv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a public.

키워드: 이주노동자, 사회적 서비스, 사회연결망, 사회적 욕구, 접근성

Migrant Worker, Social Services, Social Network, Social Need, Accessibility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1103).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slee@pusan.ac.kr)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mukk73@naver.com)(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08년 1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2월 11일

1. 서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정책담론으로 부상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지원책의 상당부분이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고, 전체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통합정책에서 배제되고, 이들의 이주형태가 장기적·영구적 이민이 아닌 일시적·단기적 체류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방지하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22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노동자의 상당수가 장기체류자라는 현실과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한 미등록노동자의 존재는 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일시적인 노동력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8년 4월 기록으로 10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노동자는 2만1966명, 5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노동자는 4만7300명으로, 이미 정주단계에 접어든 이주노동자가 7만 명에 이른다(조선닷컴 2008). 게다가 2008년 1월부터 숙련 생산가능 인력이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거주 자격 및 가족 동반이 가능해진만큼 새로운 유형의 정주 이민자로서 이주노동자의 장기 거주에 대비한 시책과 지원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일원으로서 이주노동자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된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는 물론이고 노동,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집단의 존재는

사회적 갈등, 빈곤, 범죄, 질병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최소화하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권만 보장받을 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에도 소외되어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에서도 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많다. 이주노동자는 시간적, 지리적, 심리적 제약은 물론이고 언어소통의 한계와 정보의 부족으로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에 관한 조사연구들은 단순한 생활실태나 노동실태 조사를 기초로 서비스의 접근성을 파악하는 수준이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 지원서비스의 한계와 취약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지원체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욕구충족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개인이 맺게 되는 연결망에 의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분석도구로 인식하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체계 및 사회연결망에 대해 검토한 후, 실제로 이주

노동자가 사회적 욕구상황에서 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연결망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는지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사회적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¹⁾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당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 여가와 문화를 즐기려는 욕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려는 욕구 등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는 그것이 인식되는 맥락에서 정의되어야 하므로,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이주노동자의 당면 문

제를 살펴보면, 설동훈(2002)은 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임금체불, 산업재해·직업병·의료혜택문제, 폭언·폭행·성폭력·살인사건, 신분증 압류, 강제적립금, 외출통제·감금문제, ②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대우,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 자녀교육문제, ③ 국가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로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배제,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 강제출국시 범칙금 부과문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윤석오·박명호·권장수(2005)는 ① 출입국에 관한 문제로 알선업자의 문제, 출국 벌금, 항공권 환불, 보호소 문제 등을, ②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로 열악한 주거환경, 여권소유, 송금문제 등을, ③ 직장에 관한 문제로 열악한 작업환경, 초과노동, 임금체불, 폭행 및 성폭행 문제 등을, ④ 사회적 차별에 관한 문제로 종교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 언어 장애와 문화갈등 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한다. 조석주(2007)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반적인 인종차별문제에서 시작하여 ① 노동과 관련해 장시간 근무, 임금체불문제가 있고, ② 의료문제로서 각종 질병 및 스트레스성 장애, 심리적 고통, 의료보험 비적용 등이 있으며, ③ 작업장과 관련해 작업장의 안전장치 및 안전교육의 미비, 작업장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지적한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2006)의

1)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의 개념과 범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관련제도 및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재정적, 금전적 급부를 제외한 서비스적 급부로서 개별적인 욕구충족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할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대체로 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거나, 실제로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서비스란 인간이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보완적인 서비스를 포괄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① 주택 및 주거문제로 비싼 임대료 및 구입가격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고, ② 건강 및 사회보장과 관련해 각종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뿐 아니라 낮은 보험가입률, 정보부족, 의료비 부담 등이 문제이며, ③ 쇼핑 및 여가 활용에 대해 상품정보부족, 상인과의 의사소통, 시간과 돈의 부족, 문화시설의 부족, 안내정보 부족 등이, ④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구직, 초과 근무,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⑤ 자녀교육과 관련해 취학자녀의 입학 등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발전연구원(2007)의 실태조사에서는 ① 취업 및 근로와 관련해 장시간 근로, 과도한 작업량,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시설 미비 등을, ② 의료보 건복지와 관련해 업무 중 사고, 의료기관 이용 제한, 과도한 의료비부담, 보건 및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욕구, 직장 내 복지시설 미비 등을, ③ 주거와 관련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④ 일상 및 가정생활과 관련해 단조로운 여가생활과 자녀교육 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문제 상황의 구분은 지원서비스의 성격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당면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상황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그 영역에 따라 서비스의 주체와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욕구상황에 필요한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욕구상황과 지원서비스를 연계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욕구상황을 서비스 영역에 따라 정리하면, ① 노동영역은 임금체불, 신분증압

류, 폭언 및 폭행, 열악한 근로조건, 산업재해, 직장 내 갈등, 사업체 변경 및 취업 등, ② 의료영역은 질병 및 상해사고, 의료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검진 및 상담 등, ③ 교육영역은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귀환프로그램 등, ④ 정보영역은 한국 관련 정보 및 자료, 모국 현지 소식 및 정보, 생활정보 등, ⑤ 사회문화영역은 언어적 차이,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이, 종교, 금융거래 등에 관한 욕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2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체계

이주노동자에게 지원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다시 공공의 지원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중앙의 경우 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이 나누어 수행한다. ①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노동자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외국인력 도입 및 송출국가 선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허가제 운영 및 불법고용 대책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② 법무부는 외국인출입국심사, 외국인등록·사증 발급·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의 외국인 체류 지원, 산업연수지원·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출입국 사범조사 및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 등을 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교

2)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외에 김희재(2003), 김현숙(2004), 송종호(2006), 조용완(2007) 등의 연구를 참조함.

육·외국인문화센터 운영지원·문화축제 및 문화가이드 북 등의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④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화합행사 개최, 생활정보 제공·민원상담·시정참여, 응급구호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지원과 무료진료사업 등을 담당하고, ⑥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자녀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며, ⑦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⑧ 여성부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고용허가제 하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보험사업자·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기협·수협·농협·건협 등의 민간대행기관, 주한송출국가 대사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³⁾ 지원조직은 전국 56개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23개의 한국산업인력공단, 34개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10개의 주한송출국가 대사관, 민간업무대행기관으로서 14개의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소와 5개의 출장소, 2개의 농

협중앙회, 29개의 수협중앙회, 17개의 대한건설, 25개의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수행기관, 52개의 민간외국인지원단체로 구성된다(노동부·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223-232).

그리고 지방차원에서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인구구성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책과 지원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지원업무는 ① 외국인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별 외국인지원 조례 제정, 지역단위 국제센터 설립·운영 지원, ②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담지원(생활·법률 상담, 임금체불 등의 고충 상담 및 처리, 취업상담 등), 생활편의제공(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자유이용 및 시설내 외국인 전용자료 코너 개설, 다국어로 된 생활정보 제공), 응급구호체계 확립(응급시 활용할 수 있는 무선페이징 시스템 확대구축,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소방안전점검 강화), ③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교육·홍보, 민관협력 기반조성,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지원 등이다(행정안전부 2006). 이

3) 관련기관의 서비스 지원내용을 보면, ① 노동부 근로감독과는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금품 미지급, 사업주 및 관리자의 폭행, 근로시간 미준수, 강제근로 등에 관한 사항, ② 노동부 산업안전팀은 작업장내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사항, ③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내 애로 및 갈등조정, 조기귀국 노동자 출국지원, 이주노동자 제해사고 지원, 사업장 변경지원,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체류관리신고 업무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장 이동, 취업알선 등 관리, 고용·이탈·출국신고서 접수, 고용 변동, 사업장변경·조기출국 결정 등에 관한 사항, 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관리(외국인등록증발급 등), 불법체류자 관리, 강제출국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 주한 송출국가 대사관은 사망자 장례, 시신송환, 유족입국, 자국민권익보호, 강제출국 등에 관한 사항, ⑦ 중기·농·수·건협 등의 민간대행기관은 해당업종 사용자의 입국 전·후 행정대행업무 및 편의제공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⑧ 보험사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⑨ 서울보증보험(주)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⑩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등에 관한 사항, ⑪ 국민연금공단은 일시반환금, 유족연금, 장제비 등에 관한 사항, ⑫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지원, 장제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7, 14).

외에도 공공영역의 정보제공자로서 지역공공도서관의 경우, 이주노동자 혹은 이주민을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는 전남이나 인천 등의 일부 지역에서 한글교실, 문화교실,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조용완 2007, 9).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종교계 지원단체, 인권·시민단체(NGO), 직능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 부문별 분포는 인권·시민단체 5.6%, 종교계 지원단체 87.6%, 직능단체 6.7%를 차지함으로써 종교계 지원단체가 다수를 차지한다(송중호 2006, 37).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시작한 종교계 지원단체는 미사나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을 위한 기능에서 상담, 쉼터,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권·시민단체 등의 NGO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운동에 역점을 두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직능단체의 지원은 의료봉사 및 법률서비스에 한정된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교계 지원단체와 NGO는 종교 활동영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들의 구체적인 지원활동은 ① 상담지원, ② 건강검진과 무료진료 등의 의료지원, ③ 쉼터 및 피난처 운영 등의 복지지원, ④ 한국어교육·컴퓨터교육·법률교육 등의 교육지원, ⑤ 각종 정보지원, ⑥ 문화축제·문화체험 등의 문화지원, ⑦ 종교지원, ⑧ 이주노동자단체지원 등의 공익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근에 늘고 있는 이주민들의 자생조직인 이주민공동체도 중요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이주민공동체는 친

목도모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 노동, 취업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무료진료 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자국명절에 음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공동체로서 기능한다.

이상과 같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상호 중첩되면서도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서비스로서, 출입국신고나 비자연장과 같이 이주노동자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나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과 같이 기본권적 특성을 가진 서비스 혹은 이주노동자의 건강, 안전, 생활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에 해당한다. 반면 민간부문의 지원서비스는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필요하고, 또 선택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즉 이주노동자의 이익에 직접 관련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체성, 귀속감, 우정, 오락과 같은 무형적인 편익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노동이나 의료와 같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면, 정보와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서비스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에 있어서도 역할에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의 서비스 대상이 등록노동자인 반면, 민간부문은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미등록노동자의 주요 서비스공급자가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공공과 민간부문간, 그리고 개별조직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존재한

다는 것은 지원조직이 한정된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사회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러한 공식적인 지원조직들로부터 제공받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2.3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결망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06, 157). 그렇다면, 실제로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최근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때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2006)의 실태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업을 찾을 때 친구를 통해 알아보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민간단체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친구들의 추천을 들었다. 이에 관해 김현주·전광희·이혜경(1997)는 이주노동자의 친구집단이 정보, 일자리, 재화 등의 흐름을 주관하는 후견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관공서나 NGO에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도 한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문 서비스기관에 접근

하기 전에 도움을 얻기 위해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주변사람들의 준거체계(lay referral system)'를 이용한다(Fredson 1960, Suchman 1965). Suchman(1965)는 지방적인 사람(parochial individuals)의 경우 친구, 가정, 동포와 가장 밀접하고 배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미루는 경향이지만, 국제적인 사람(more cosmopolitan individuals)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이 약하고, 보다 광범위한 친구시스템을 가지며, 보다 일찍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와 자선조직으로부터 도움을 얻거나 혹은 친구, 친척, 이웃, 직장동료 등의 개인적인 연계로부터 오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Tindall & Wellman 2001, 276).

그런데 전통적인 욕구사정모델은 공식적인 지원조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욕구를 확인하고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는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지리적 유동성을 제약하거나 촉진한다는 점에서(Tindall & Wellman 2001, 277),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연결망분석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⁴⁾

4) 사회과정의 자율적인 전개라는 측면에서, 국제노동이동을 둘러싼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동기와의 관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주과정에서 형성된 이주의 연결망과 생활공동체의 활동은 정주화와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武部 信 1996, 318).

국제이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기 유입과정부터 이주민의 정착과 성공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Durkheim(1951)는 이주민의 소수자적 지위가 '높은 밀도의 네트워크'와 '강한 통합성'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특성이 실제로 네트워크의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Portes(1995)는 원주민에 비해 이주민그룹의 네트워크가 더 유익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Kazemipur(2006)는 이주민의 사회네트워크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Kazemipur(2006)는 소수자적 지위에 있는 이주민들은 이주민공동체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주민네트워크가 새로운 국가에서 겪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비이주민과 이주민 간의 네트워크 의존성의 차이를 비교해 이주민의 사회네트워크의 특성과 네트워크의 보상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14개 도시에 거주하는 600명의 이주민과 비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민의 사회네트워크는 비이주민의 네트워크에 비해 오히려 더 작은 성과(보상)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현주·전광희·이혜경(1997)의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자국민네트워크가 낮은 외국생활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적응을 지연시키고 현지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⁵⁾ 그러나 McCarthy(2005)

는 이주민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원조와 지지가 문화장애로 인한 개인 간의 갈등, 외로움, 알코올중독 등의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줄여줄 뿐 아니라 고용이나 취업 등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공식적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욕구충족을 위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Hernández·Pozo·Alonso(2004)의 연구는 남부 스페인에 사는 모로코출신 이민자를 중심으로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들은 자원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공식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보다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감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 우정, 그리고 소속감 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와 구성은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Tindall & Wellman 2001, 278). Lynam(1985)의 연구는 어린 자녀를 둔 12명의 캐나다 이주민 어머니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네트워크 이용의 변화는 자녀의 욕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주민어머니가 자녀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May(1992)는 자녀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네트워크의 관계를 아랍계 이주민 부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집트 출신, 팔레스타인 출신, 예멘 출신의 이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사

5) 김현주, 전광희, 이혜경(1997)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민과의 접촉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 입국이 자국민끼리의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연쇄적으로 동일한 작업장 혹은 동일한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자국민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외국인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카타르시스 기능에 머무른다고 지적한다(김현주, 전광희, 이혜경 1997, 130).

회적 지지와 네트워크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들의 네트워크는 크기가 작고, 관계 유형에서 가족의 수가 친구보다 많으며, 네트워크의 접촉빈도는 낮고, 네트워크의 구성은 동포 혹은 다른 아랍계 미국인으로 이루어지며, 지리적 거리는 미국 외부 구성원이 26%를 차지하고, 미국 거주기간과 네트워크 구성에서 인근주민이 차지하는 비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녀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중동에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장거리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문화권으로 이동한 이주민은 네트워크의 자원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인근주민과의 관계가 적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단기체류 형태로 입국한 한국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인과의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이상과 같이 국외의 관련연구를 통해 이주민들은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공식적인 지원체계보다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얻고 있고, 특히 이주민의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모국인중심의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는 네트워크의 성과에 중요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결망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이주노동자

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연결망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가? 셋째, 사회적 서비스의 연결망은 서비스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SNA를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연구주체인 사회적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데, SNA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주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서비스의 욕구상황을 선별하고자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채택하였다. AHP는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수많은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을 선별하는데 용이한 분석기법이다.

3.2 측정도구의 설계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회연결망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먼저,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 첫째, 사회적 서비스란 이주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로서,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노동, 의료, 교육, 정보, 문화 등에 관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은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정도로서, 사

회적인 지원집단으로부터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킨다. 셋째, 사회연결망은 이주노동자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개인 혹은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망으로 정의한다. 넷째, 사회적 욕구상황은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의 채택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사회서비스의 연결망 분석은 5가지 영역의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데, 5가지 영역의 문제 상황은 AHP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⁶⁾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연결망은 ① 노동(임금체불), ② 의료(질병 및 상해사고), ③ 교육(한국어교육), ④ 정보(생활정보), ⑤ 사회문화(언어장벽) 영역으로 구성된다.

SNA의 주요 변수는 구조 차원과 상호작용 차원으로 나누어진다(Israel & Rounds 1987; May 1992; Kazemipur 2006; 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1999; 김희연, 한인숙 2002; 손동원 2002; 김용학 2007). 첫째, 구조차원은 네트워크의 구조와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누구이고 행위자와 어떤 유형의 관계인지를 의미하는 '구성변수'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밀도변수'로 구성한다(Goldlust & Richmond 1974; Israel & Rounds 1987; Marsh & Rhodes 1991; 손동원 2002; 김용학 2007). 여기서 구성변수는 현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기관·NGO·종교단체·공공도서관·이주민공동체 등의 공식적인 지원조직과 친구(모국인/한국인)·직장동료 등의 비공식적인 지원집단으로 구성된 관계유형을 통해 측정한다. 그리고 밀도변수는 구성원간의 연계유무로 측정한다. 둘째, 상호작용차원은 네트워크 내의 양자간 상호작용의 형태와 내용을 설명하는데, 변수는 지속성, 접촉빈도, 관계내용으로 구성한다(Israel & Rounds 1987; May 1992; McCarthy 2005; 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1999; 김희연, 한인숙 2002; 손동원 2002; 김용학 2007). 여기서 '지속성'은 상호작용의 기간을, '접촉빈도'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관계내용'은 정보, 정서, 조언, 문제해결 등의 지원 내용⁷⁾을

6) 본 연구는 AHP 모형의 설계를 위해 우선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AHP 계층을 정의하였다. 주요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5개의 주 영역과 22개의 세부기준으로 AHP 계층을 구성하였다. 5개의 주영역은 '노동', '의료', '교육', '정보', '사회문화'의 5가지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노동'은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폭언 및 폭행, 열악한 근로조건, 산업재해, 직장내 갈등, 사업체 변경 및 취업으로 세분화하고, '의료'는 질병 및 상해사고, 의료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검진 및 상담으로 나뉘며, '교육'은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귀환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는 한국 관련 정보 및 자료, 모국현지 소식 및 정보, 생활정보로 나뉘며, '사회문화'는 언어장벽,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이, 신앙생활, 금융거래로 세분화 한다. 조사는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직접면접, 이메일,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국의 관련 기관 및 단체(NGO)의 업무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전문가 33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Expert Choice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역별로 노동의 임금체불, 의료의 질병 및 상해사고, 교육의 한국어교육, 정보의 생활정보, 사회문화의 언어장벽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7) 관계내용에서 정보적 지원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을, 정서적 지원은 신뢰, 위로, 용기, 격려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것을, 조언의 지원은 당면 문제에 대해 조언과 충고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해결적 지원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당면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해 측정한다.

3.3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실태와 사회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는 1차 예비조사(8명)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쳐 완성하였다.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의 용이성, 자료수집의 효율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부합하거나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표집(Judgemental sampling)과 특정 표집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이나 연구목적에 맞는 다른 표집대상자를 소개받아 점차 표집대상을 확대해가며 조사하는 방식인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안정국 2008, 70). 총 설문대상은 128명으로 사업체(59명), 시민단체(23명), 종교단체(46명)으로 나누어 배포하고, 국적은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베트남인, 파키스탄인, 한국계 중국인 등이다. 설문지는 각 국가별 언어로 작성하였으며, 개인배경(6문항),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성(5문항), 사회연결망(5문항의 하위 7문

항, 총 35문항)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관계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설문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응답하도록 명시하였다. 자료입력은 회수된 설문지의 자료를 토대로 Microsoft Office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분석도구로서 SPSS와 NetMiner를 통해 빈도분석과 SNA를 수행했다.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연결망분석기법은 연결수와 연결강도, 네트워크 밀도, 중심성(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등이다. 여기서 연결수는 전체 연결망에서 각 노드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수를 의미하고, 연결강도는 노드간의 연결의 정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밀도는 연결망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수를 가능한 최대관계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고, 중심성은 각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을 많이 맺는 정도를 의미하는 연결중심성, 다른 노드에 연결되는 거리를 의미하는 근접중심성, 노드 사이를 많이 매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매개중심성을 분석한다(손동원 2002, 91-109)(표 1 참조).

〈표 1〉 조사의 대상 및 방법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인원 | 설문 방법 | 분석 방법 |
|------------------|---------|-------|----------------|---------------------------------------|
| 사회연결망분석 (SNA) | 이주노동자 | 인도네시아 | 직접면접조사 우편설문조사 | 연결수 연결강도 네트워크 밀도 중심성 빈도분석 |
| | 중국 | 25 | | |
| | 한국계 중국 | 8 | | |
| | 파키스탄 | 11 | | |
| | 베트남 | 22 | | |
| | missing | 1 | | |
| | 소 계 | 128 | 배포 128/ 회수 128 | SPSS/NetMiner |

4. 부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연결망 분석

4.1 부산지역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체계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이주민의 수는 등록외국인과 국적취득자를 합쳐 총 753,381명이고, 이 중에서 단순기능인력 376,940명, 전문인력 27,517명을 포함하는 이주노동자가 404,457명에 이른다(법무부 홈페이지). 이 중에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5,160명으로 국적별로 베트남 1,119명, 필리핀 797명, 인도네시아 729명, 태국 531명, 중국 494명, 조선족 489명, 우즈베키스탄 328명, 몽골 229명, 스리랑카 194명, 파키스탄 147명, 캄보디아 43명, 네팔 28명, 미얀마 17명, 한국계러시아 10명, 방글라데시 4명, 러시아 1명이다(부산시 노사정책과 내부자료 2008).

2008년 5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외국인 처우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①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제출, ② 외국인 생활안내서 등의 제작 및 배포, ③ 한국어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④ 무료진료소 운영, 진료비 지원 등의 의료지원 ⑤ 문화축제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노사정책과에서 1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근로자 초청 한국노래경연대회 및 장기자랑 등의 문화행사를 지원하였고, ② 국제교류재단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월 1회 봉산탈춤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③ 보건위생과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지원을 위한 병원 지정 운영, 「함께하는 약사회」에 봉사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대상 무료투약 및 가벼운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부산시 노사정책과 내부자료, 2008).

다음 <표 2>는 부산지역 이주노동자에 관한 서비스 지원조직의 현황을 보여준다.

4.2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실태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89.5%, 여자 10.2%를 차지하고, 연령은 20대 36.5%, 30대 50.8%, 40대 7.1%, 50대 5.6%이며, 혼인상태는 미혼 47.2%, 기혼 52.8%이고, 국적은 중국 19.7%, 한국계 중국인 6.3%, 베트남 17.3%, 인도네시아 48%, 파키스탄 8.7%를 차지하며, 체류기간은 1년 미만 23.6%, 1-2년 24.4%, 2-3년 26%, 3-4년 18.9%, 4년 7.1%이고, 체류자격은 단기종합 2.5%, 단기취업 0.8%, 산업연수 9%, 일반연수 5.7%, 연수취업 6.6%, 비전문취업 58.2%, 선원취업 0.8%, 방문동거 1.6%, 방문취업 8.2%, 기타 6.6%를 차지한다.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지난 1년간 중요한 욕구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과 같이 응답자 총 128명 중 임금체불, 질병 및 상해사고, 한국어교육 등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데 비해 한국어교육과 생활정보에 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언어와 생활정보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부산지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조직⁸⁾

| 주체별 구분 | | 조직 현황 |
|--------|-------------|--|
| 공공부문 | 중앙기관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지방노동청 |
| | 부산시 | 부산시청 여성가족정책관실(총괄부서), 노사정책과(고용), 문화정책과(문화행사), 보건위생과 및 전업병관리과(의료), 국제협력담당관(문화교류) |
| | 자치구 | 자치구별 담당과 |
| | 공공 도서관 | 부산광역시립도서관 |
| 민간부문 | 민간단체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이주민문화센터, 수영로외국인의집 등 |
| 영역별 구분 | | 조직 현황 |
| 노동 | 취업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부산상공회의소 |
| | 공공 의료 | 자치구별 보건소(16개) |
| 의료 | 정신 보건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 금정구 정신보건센터, 북구 정신보건센터, 부산진구 정신보건센터, 부산 알코올상담센터 |
| | 무료 진료 | 벨엘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대한결핵협회부산지부 |
| | 의료 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 외 11개지사 |
| | 외국인 진료 일반병원 |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위생병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동의대한방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의 201개 일반병원 |
| 교육 | 한국어 교육 | 동명대학교 언어교육원, 경성대학교 한국어학당,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부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영산대학교 한국어학당, (사)부산국제친선협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원,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한국어강좌프로그램 |
| | 정보화 교육 |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 EBS한국어교육, 한국어세계화재단, 재외동포재단 TeenKorean, 이주민한국어교육정보센터 |
| 정보 | 생활 정보 | 부산국제교류재단(소식지 Busan Life), BBS 통역서비스, 각시·군민원안내120, 관광정보 134, 감사원신고센터188, 우체국민원안내1300, 여성상담전화1366, 전화시간안내116 |
| | 자료 및 도서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 민들레도서관 |
| 사회문화 | 법률 상담 | 출입국종합안내지원센터, 법률구조상담132, 공인여성단체(10개), 가정폭력상담소(14개), 건강가정지원센터(4개) |
| | 복지·보호시설 | 종합사회복지관(21개), 이주여성보호시설(5개), 모자보호시설(7개) |
| | 종교 | 기독교(16개), 천주교(1개), 불교(5개), 이슬람(한국이슬람교중앙회 부산지회), 러시아선교회 |

그리고 사회적 욕구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해결방식은 임금체불과 질병 및 상해 사고를 제외하고 ‘참거나 자력으로 해결’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고충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대응방식이 주로 참고 견디는 방식이라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증명

해준다(박석운 1995: 유명기, 1995: 설동훈 1997; 노동부 2007;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이것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지원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표 4〉와 같이 욕구상황에서 필요한 자원

8) 2008년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사회서비스 욕구 상황에 따른 대처 방식

| 사회적 욕구 상황 | 구 분 | 빈 도 | 유효백분율(%) |
|--------------------|----------------|-----|----------|
| 노 동 (임금체불) | 경험한 적 없음 | 78 | 61.9 |
| | 참거나 해결하지 못함 | 10 | 7.9 |
| | 자력으로 해결 | 11 | 8.7 |
| |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문의 | 27 | 21.4 |
| 의 료 (질병 및 상해사고) | 경험한 적 없음 | 76 | 63.3 |
| | 참거나 해결하지 못함 | 6 | 5.0 |
| | 자력으로 해결 | 16 | 13.3 |
| |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문의 | 22 | 18.3 |
| 교 육 (한국어교육) | 경험한 적 없음 | 38 | 32.2 |
| | 참거나 해결하지 못함 | 6 | 5.1 |
| | 자력으로 해결 | 51 | 43.2 |
| |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문의 | 23 | 19.5 |
| 정 보 (생활정보) | 경험한 적 없음 | 45 | 39.8 |
| | 참거나 해결하지 못함 | 7 | 6.2 |
| | 자력으로 해결 | 39 | 34.5 |
| |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문의 | 22 | 19.5 |
| 문 화 (언어장벽) | 경험한 적 없음 | 59 | 51.8 |
| | 참거나 해결하지 못함 | 8 | 7.0 |
| | 자력으로 해결 | 35 | 30.7 |
| |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문의 | 12 | 10.5 |

〈표 4〉 사회서비스 욕구 상황에 따른 관계유형별 구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사회서비스 욕구 상황 | | | | | 합 계 |
|----------|-----------|-------------|----------|----------|----------|----------|----------|
| | | 노 동 | 의 료 | 교 육 | 정 보 | 사회문화 | |
| 관계 유형 | 친구(모국) | 13(31.0) | 10(30.3) | 6(18.8) | 13(34.2) | 8(36.4) | 50(29.9) |
| | 친구(한국) | 1(2.4) | 1(3.0) | 2(6.3) | 2(5.3) | 4(18.2) | 10(6.6) |
| | 직장동료 및 상사 | 8(19.0) | 5(15.2) | 8(25.0) | 11(28.9) | 4(18.2) | 36(21.6) |
| | NGO | 5(11.9) | 4(12.1) | 4(12.5) | 4(10.5) | 2(9.1) | 19(11.4) |
| | 종교단체 | 10(23.8) | 10(30.3) | 12(37.5) | 7(18.4) | 3(13.6) | 42(25.1) |
| | 행정기관 | 1(2.4) | 2(6.1) | 0(0.0) | 0(0.0) | 0(0.0) | 3(1.8) |
| | 공공도서관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이주노동자모임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합 계 | | 42(25.1) | 33(19.8) | 32(19.2) | 38(22.8) | 22(13.2) | 167(100) |

을 관계를 통해, 즉 타인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려는 경우는 전체 약 38% 정도이며, 5가지 사회서비스 욕구 상황 중에서 특히 '임금체불'과 '질병 및 상해사고'는 '관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의

경우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질병 및 상해사고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이나 기관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욕구 상황에 따른 관계유형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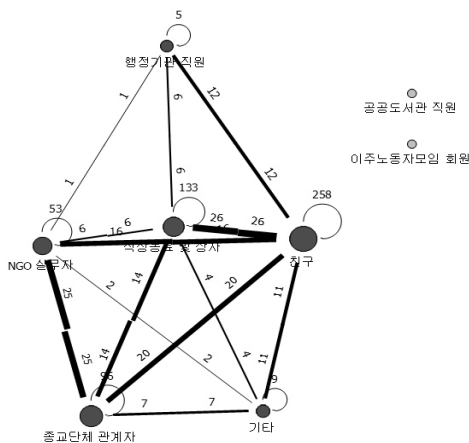
체 구성 비율은 모국인 친구, 종교단체, 직장동료 및 상사, NGO, 한국인친구 등의 순이다. 임금체불(노동)과 질병 및 상해사고(의료)의 경우 도움을 대상은 모국친구, 종교단체, 직장동료 및 상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한국어 교육(교육)의 경우 종교단체, 직장동료 및 상사, 모국친구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보(정보)는 모국친구와 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언어장벽(사회문화)은 모국친구, 한국친구, 직장동료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모국친구에게 가장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들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문제발생시 가장 접근이 용이한 모국인 집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들이 제공해줄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정보의 경우 때때로 부정확하거나 혹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연결망

4.3.1 서비스 지원집단간의 연결망

본 연구는 사회적 서비스의 네트워크 형태를 기술하기 위해 소시오그램을 작성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1>은 사회적 서비스의 연결망을 집단간 네트워크로 도식화한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서, 여기서 행위자(집단)는 점으로, 관계는 선으로, 링크수는 원의 수치로, 관계의 강도는 선의 수치로 나타낸다. 총 6개의 연결노드가 서비스 지원 조직간 연결망을 형성하고, 연결망의 주변에 2개의 고립집단이 존재하고 있어 네트워크 포괄성은 75%이다. 네트워크 내의 노드간 링크수는 300개, 평균 37.5, 표준편차 29.377, 네트워크의 밀도는 5.357이다.

연결망의 중심성 분석의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이 링크수가 가장 많은 '친구'집단이 연결강도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종교단체', '직장동료', 'NGO', '행정기관' 순으로



<그림 1> 집단간 네트워크

<표 5> 서비스 집단의 중심성 분석

| 서비스 집단 | 연결 중심성 | 근접 중심성 | 매개 중심성 |
|-----------|--------|--------|--------|
| 친구 | 12.143 | 0.714 | 0.032 |
| 직장동료·상사 | 8.000 | 0.714 | 0.032 |
| NGO 실무자 | 7.143 | 0.714 | 0.032 |
| 종교단체 관계자 | 9.429 | 0.595 | 0.000 |
| 행정기관 직원 | 2.714 | 0.510 | 0.000 |
| 공공도서관 직원 | 0.000 | 0.000 | 0.000 |
| 이주민공동체 회원 | 0.000 | 0.000 | 0.000 |

나타났는데, 여기서 친구, 직장동료, NGO는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동일하게 나타나 네트워크에서 세 집단의 역할이나 영향력에 차이가 없는 반면, 종교단체와 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근접중심성이 낮게 나타나 네트워크 전체에서 다른 조직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지 못한데다, 매개중심성이 '0'으로 나타나 네트워크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두 번째로 높는데 반해 근접중심성은 낮게 나타나 그 역할과 영향력이 로컬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이주노동자모임은 다른 조직과 연계를 갖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어 서비스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공영역의 정보제공자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정립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비공식적 지원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지원체계만을 조사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욕구사정모델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3.2 소속집단별 서비스 연결망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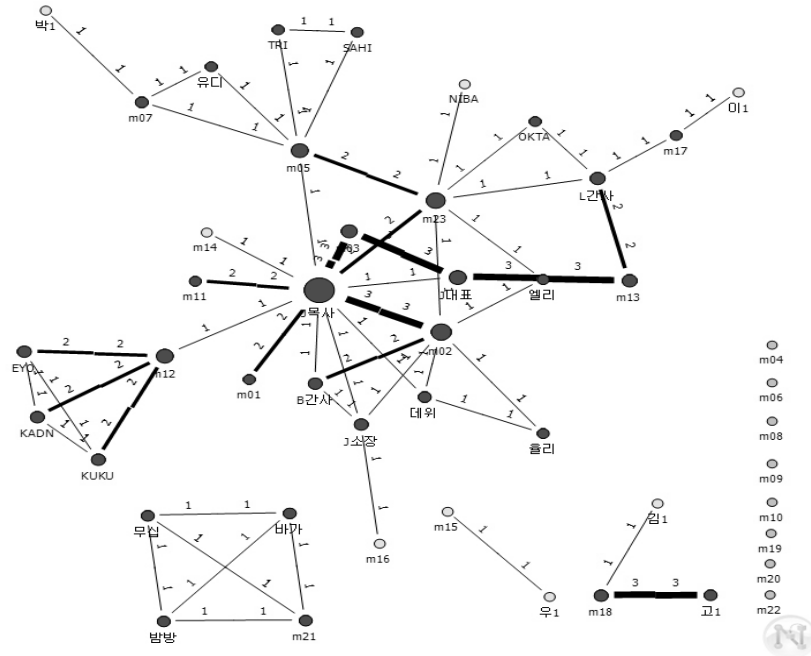
집단별 연결망 구조의 특성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먼저 NGO의 서비스 연결망은 총

39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드는 종교단체 1개, NGO 6개, 모국인 친구 9개, 한국인 친구 3개, 직장동료 3개와 이주노동자 노드 25개로 비교적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망 주변에 8개의 고립노드가 존재하고 있어 네트워크의 포괄성은 82.979%로 비교집단 중에서 포괄성이 가장 높고, 연결망의 링크수는 총 146개로 노드간 연계가 가장 많고, 밀도⁹⁾는 0.068로 구성원간의 상호연계와 응집력은 중간수준이다.

다음 <그림 2>와 같이 서비스 연결망은 개별 고립노드를 제외하고 1개의 주요 컴포넌트와 4개의 고립된 소규모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행위자가 속해있는 주요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연결망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컴포넌트의 연결망 중앙에는 'J목사'가 있다. 'J목사'는 해당 NGO가 소속된 기관인 '외국인 근로자선교회'¹⁰⁾의 리더인데, 이 선교회는 순수종교기관과 달리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종교계 지원단체로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소시오그램에서 주목할 것은 중심과 개별 노드를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이주노동자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중심에 있는 'J목사'와 강한 연계를 맺으면서 개별 노드를 중심에 연결시켜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한다.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는 'J목사'이고, 연

9) 연결망 밀도는 연결망 내의 모든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연결망을 1로, 모든 조직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10)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한국어학당 및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문화체험 및 축제, 이벤트 행사, 각종 간담회 및 심포지엄, 이주민공동체 지원,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연대활동 등 이주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서비스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홈페이지).



<그림 2> NGO의 사회적 서비스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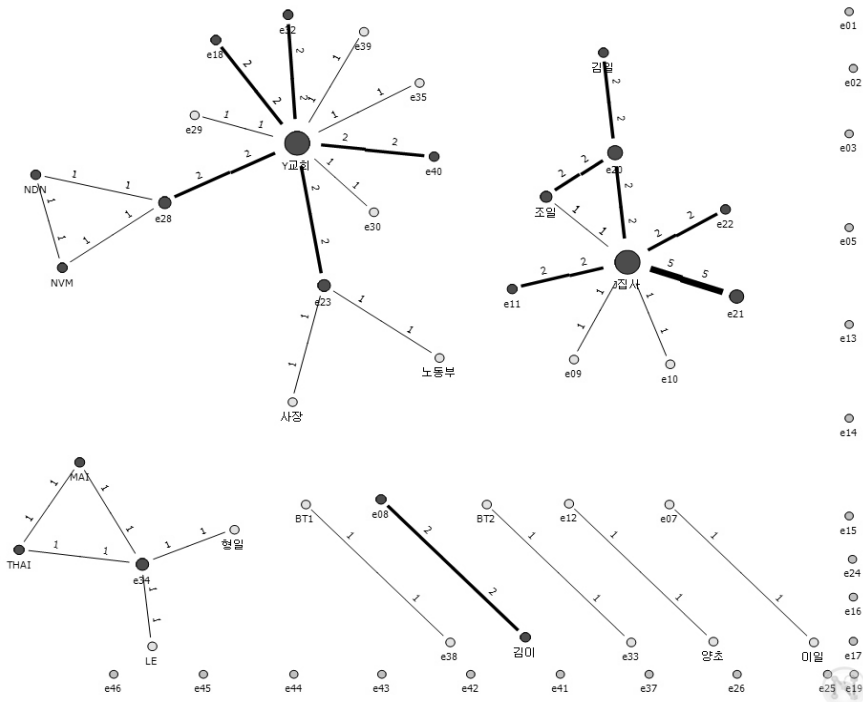
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의 경우 'J대표(4위)'가, 매개중심성은 해당 NGO의 'L간사(5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주노동자의 중심성이 높다. 먼저, 연결망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인 'J목사'는 구성원들과 관계가 가장 많고, 거리가 가장 가까우며, 구성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결중심성이 높은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2-3년 이상 체류한 노동자라는 점에서 체류기간이 길수록 정보와 자원의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높은 'J대표'의 존재이다. 'J대표'는 부산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단체의 리더이다. 위의 그림에서 'J목사'와 'J대표'의 연계는 이주노동자 관

련단체간의 연대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표 6 참조).

둘째, 종교단체의 서비스 연결망에는 총 38개의 노드가 연결망에 참여하고, 이 중에 2개의 종교단체, 4개의 직장동료, 9개의 모국친구, 1개의 한국인친구, 1개의 행정기관 노드와 함께 21개의 이주노동자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망 주변에 20개의 고립노드가 존재하고 있어 네트워크의 포괄성은 65.517%로 비교집단 중에서 중간수준이다. 또한 연결망의 링크수는 96개, 밀도는 0.029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응집력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20개의 고립노드를 제외한 서비스 연결망은 2개의 주요 컴포넌트와 6개의 소규모 컴포넌트들로 구성된다. 2개의 주요 컴포넌트는 'Y교회'와 'J집사'가 중

〈표 6〉 NGO의 사회적 서비스 연결망의 중심성

| 순위 | 연결중심성 | | 근접중심성 | | 매개중심성 | |
|----|------------|-------|------------|-------|------------|-------|
| 1 | J목사(종교단체) | 0.413 | J목사(종교단체) | 0.365 | J목사(종교단체) | 0.246 |
| 2 | m02(노동자) | 0.217 | m23(노동자) | 0.320 | m23(노동자) | 0.131 |
| 3 | m23(노동자) | 0.195 | m05(노동자) | 0.299 | m05(노동자) | 0.121 |
| 4 | J대표(NGO-2) | 0.152 | m02(노동자) | 0.285 | m12(노동자) | 0.075 |
| | m12(노동자) | | | | | |
| | m05(노동자) | | | | | |
| 5 | m03(노동자) | 0.130 | J대표(NGO-2) | 0.253 | L간사(NGO-1) | 0.060 |
| | | | m12(노동자) | | | |
| | | | J소장(NGO-1) | | | |



〈그림 3〉 종교단체의 사회적 서비스 연결망

심인 형태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데, 두 노드는 같은 집단의 소속이지만, 중심노드와 연결된 개별 노드들의 구성을 보면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Y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컴포넌트는 베트남출신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반면, 'J

집사(Y교회 소속)'를 중심으로 하는 컴포넌트는 중국출신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개의 컴포넌트의 형태는 중심노드인 종교단체를 가운데 두고 이주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결된 스타형의 관계형태를 보

인다. 이처럼 중앙과 변방의 구조로 배열된 스타형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정보나 자원을 중앙에서 독점하고 변방은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전형적인 위계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와 자원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된다. 또한 나머지 고립된 각각의 소규모 컴포넌트는 대체로 2개의 노드가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보인다. 결국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서비스 연결망은 매우 빈약하고 폐쇄적일 뿐 아니라 연결망의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고립노드들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심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Y교회'와 'J집사'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주요 순위에 이주노동자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연결망에는 종교단체와 이주노동자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이고, 다른 집단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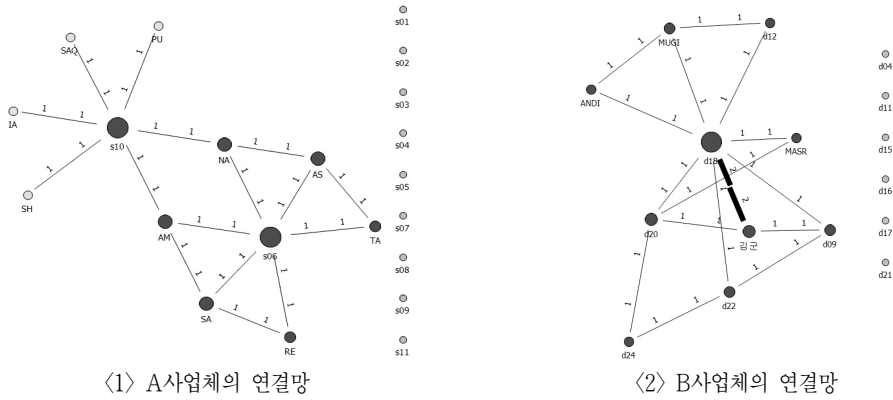
셋째로,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A기업의 연결망에는 총 12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고, 노드는 8개의 모국인친구, 1개의 NGO, 1개의 행정기관, 2개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망 주변에 9개의 고립노드가 있어 네트워크의 포괄성은 57.143%로 비교

집단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서비스 연결망은 9개의 고립노드를 제외하고 1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지고, 이 컴포넌트는 S10과 S6이 중심이 되어 분리 연결된 구조이다. S10은 각각의 노드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S6과 연결된 형태를 보인다. S10을 중심으로 4개의 개별노드들이 분리되어 연결된 경우에는 정보와 자원이 하나의 노드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중심성 분석에서 S10은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S6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고, NA와 AM은 근접중심성이 비교적 높다. 이 사업체의 연결망은 이주노동자와 모국인친구로 구성된 자국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B기업의 연결망에는 총 1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고, 노드는 5개의 직장동료, 2개의 모국인친구, 1개의 한국인 친구, 2개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망 주변에 6개의 고립노드가 있어 네트워크의 포괄성은 62.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림 4>에서 서비스 연결망은 6개의 고립노드를 제외하고 1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지고, 이 컴포넌트는 d18을 중심으로 2개의 하위집단과 1개의 고립 노드('김군')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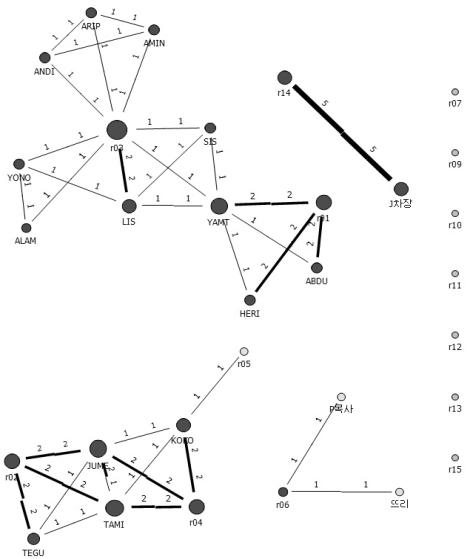
<표 7> 종교단체의 사회적 서비스 연결망의 중심성

| 순위 | 연결중심성 | | 근접중심성 | | 매개중심성 | |
|----|-----------|-----------|-----------|-----------|-----------|-----------|
| | 1 | Y교회(종교단체) | 0.246 | Y교회(종교단체) | 0.174 | Y교회(종교단체) |
| | J집사(종교단체) | 0.246 | | | J집사(종교단체) | 0.016 |
| 2 | e20(노동자) | 0.105 | J집사(종교단체) | 0.125 | | |
| 3 | e21(노동자) | 0.088 | e28(노동자) | 0.119 | e28(노동자) | 0.014 |
| | | | e23(노동자) | | e23(노동자) | |



〈1〉 A사업체의 연결망

〈2〉 B사업체의 연결망



〈3〉 C사업체의 연결망

〈그림 4〉 사업체의 서비스 연결망

결되어 있다. 이 컴포넌트의 구성원들은 서로 연계된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나 정보 및 자원의 교환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는 d18이고, 그 다음 순서가 d20이다. 그런데 d20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 비해 근접중심성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네트워크에서

노드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체의 서비스 연결망은 직장을 중심으로 한 자국인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C 사업체의 연결망은 총 24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직장동료, 1개의 종교단체, 11개의 모국인친구, 7개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망 주변에 7개의 고립노드가 있어 네트

〈표 8〉 사업체의 사회적 서비스 연결망의 중심성

| 구분 | 순위 | 연결중심성 | | 근접중심성 | | 매개중심성 | | |
|-----|----|------------|----------|------------|----------|------------|----------|-------|
| 사업체 | A | 1 | s06(노동자) | 0.300 | s10(노동자) | 0.336 | s10(노동자) | 0.182 |
| | | | s10(노동자) | | | | | |
| | 2 | NA(모국친구) | 0.150 | NA(모국친구) | 0.318 | s6(노동자) | 0.085 | |
| | | AM(모국친구) | | | | | | |
| | B | 1 | d18(노동자) | 0.600 | d18(노동자) | 0.540 | d18(노동자) | 0.214 |
| | | 2 | d20(노동자) | 0.267 | d20(노동자) | 0.386 | d20(노동자) | 0.043 |
| C | 1 | r03(노동자) | 0.300 | r03(노동자) | 0.288 | r03(노동자) | 0.074 | |
| | 2 | YAMT(직장동료) | 0.267 | YAMT(직장동료) | 0.252 | YAMT(직장동료) | 0.056 | |

워크 포괄성은 77.4%로 비교적 높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연결망은 7개의 고립노드를 제외하고 4개의 소규모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컴포넌트는 노동자 r03과 모국인친구 YAMT가 중심이 되어 각 노드들을 연결하고 있다. 중심성 분석에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은 r0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YAMT로 나타났다. 결국 노동자, 모국인친구, 직장동료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업체의 서비스 연결망은 직장중심의 자국인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인다.

공통적으로 세 사업체의 연결망에서 중심성이 높은 이주노동자는 관계가 많은 마당밭로서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인적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2-3년 이상 체류한 이주노동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은 사회네트워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표 8 참조).

4.3.3 종합적 논의

사회적 서비스의 연결망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사회적 욕구 상황에서 이주노

동자는 공식적인 지원조직을 이용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원집단, 특히 친구와 동료 등의 모국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NGO나 종교단체보다 사업체의 연결망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사업체의 서비스 연결망은 NGO와 종교단체와 달리 공식적인 지원조직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자국인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NGO와 종교단체에 비해 조직구성이 폐쇄적이고 유동성이 낮으며 구성원간의 관계가 일상적이고 접촉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업체 네트워크의 높은 밀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구성원간에 서로 끈적한 유대관계를 가지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내부의 사회적 지지는 높지만 다양성이 결여된 만큼 한정된 정보와 자원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유익한 성과를 창출하기 힘들다.

반면에 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조직으로 NGO를 토대로 형성되는 서비스 연결망은 일반 사업체의 연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NGO의 연결망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간의 연계가 많아 상호작용이 원활한 구조적 조건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자원이 교환되고 공유될 수 있어 높은 문제해결능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NGO의 서비스 연결망은 비교적 유익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서비스 연결망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각각의 이주노동자가 개별적인 관계만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와 자원의 교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서 네트워크가 유익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이러한 연결망 구조는 조사대상이 되는 종교단체가 종교계 지원단체가 아닌 순수한 종교기관이라는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즉, 종교단체의 연결망 구조는 이주노동자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당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서비스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사업체의 연결망이 많은 이주노동자가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강한 연결 형태로 작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자국인네트워크구조인 반면에, 다양한 관계 유형의 집단이 참여하는 NGO의 서비스 연결망은 느슨한 연결 형태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와 서비스 조직들이 서로 연계를 맺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비해 종교단체는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서비스조직과 이주노동자간의 개별적 관계만 존재하는 낮은 상호작용의 연결망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접근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¹¹⁾

연결망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원조직의 경우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이주노동자를 매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형태인 반면, 사업체의 경우 체류기간이 긴 노동자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교류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향후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를 활용하여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누구를 통해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어떠한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의 접근실태와 함께 서비스접근성과 사회연결망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첫째, 사회적 욕구 중에서 임금체불과 질병 및 상해사고의 경우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가 많은 반면, 교육, 정보, 문화영역과 같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사회적 욕구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기본권적 서비스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나아가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완적인 서비스로

11) 본 연구는 추가로 SPSS를 활용한 교차분석을 통해 문제의 관계의 유무와 관계유형의 다양성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보았다. SPSS 분석결과, NGO는 종교단체 및 사업체에 비해 관계를 많이 가지며, 다양한 관계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SNA 분석결과와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서비스 지원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이주노동자는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사회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주로 공식적인 지원조직이 아닌 친구나 직장동료와 같은 비공식적인 집단을 통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친구집단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원조직들을 연결시키고 협력하게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모국인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의존하는 것은 문화적·언어적 동질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모국인 친구로부터의 믿음이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특히 민·관 지원기구 모두에 대해 불신과 무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미등록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경기개발연구원 2006, 162), 사회적 자본의 확보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주민공동체와 같은 커뮤니티 지원, 이주노동자와 지역시민과의 만남주선 및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 혹은 이주노동자의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지원조직 중에서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무 등의 초과근무와 외곽공단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시간적·지리적으로 정부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정부기관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 이주노동자에게 한정될 뿐,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서비스 지원집단간의 네트워크에서 NGO, 종교단체, 행정기관 등의 공식적인 지원조직들이 비공식적 지원집단과 비교적 원활하고 고른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지식과 정보제공자로서 공공도서관은 다른 지원조직들과 전혀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외국인 관련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조차 구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의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환경변화로 과거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교육기능, 정보기능, 문화기능으로 다양화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로 진화해가는 시점에서 현재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재 부산지역 시립도서관의 경우 다국어 자료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단지 영어동화 등의 아동도서만 일부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민시립도서관의 영어홈페이지 운영, 서동시립도서관의 다문화가정의 문화강좌

운영, 영도시립도서관의 구청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실의 장소 제공 등이 지원서비스의 전부이다.¹²⁾ 향후 지원되는 서비스로서, 부산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2009년 설립할 예정인 '글로벌 빌리지'에 외국인을 위한 영어전용도서관이 마련될 계획이지만, 다문화사회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이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의 공여를 넘어서 이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다른 지원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지원체계의 논의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공식적인 지원체계의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비공식적인 지원조직을 공식적인 지원체계와 통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반면, 통합적 관점은 공공부문의 간접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의 발달을 통해 커뮤니티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 부여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Hernández, Pozo, Alonso 2004, 294).

셋째, 연결 관계가 많고 매개성이 높은 구성원들이 많아질수록 집단의 상호의존관계가 균

일해지므로, 소속집단별 서비스연결망에서 연결 관계와 매개자가 많은 NGO의 서비스연결망이 서비스 접근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결망은 다양한 관계유형의 구성원들이 상호 연계된 형태를 보이는데, 구성원간의 의견 및 정보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은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주며, 체류기간이 짧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서적, 문화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자신이 맺게 되는 관계의 특성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조(구성원의 다양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주노동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이 참여하는 이주민커뮤니티의 발달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사회연결망 분석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샘플의 대표성이 낮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정문제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 부산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구성 비율을 고려한 조사표집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2) 관련서비스의 내용은 부산에 있는 시립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2008.10.31).

참 고 문 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정책연구보고서.
- 경남발전연구원. 2007.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김현숙. 2004. 부산지역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노동상태 및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여성정책연구』, 2: 70-144.
- 김현주, 전광희, 이해경. 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0: 105-139.
- 김희재. 2003.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정책. 『사회조사연구』, 18: 61-93.
- 노동부. 2007.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조사보고서.
- 노동부·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귀국지원에 관한 연구』.
- 김희연, 한인숙. 2002.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지방정부와 사회복지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99-122.
- 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 819-849.
- 박석운. 199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과 사회』, 11: 273-299.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13: 131-158.
- _____. 2002.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당대 시민과 세계』, 2: 345-356.
- 손동원. 2002. 『사회네트워크분석』. 서울: 경문사.
- 송중호. 2006.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현황과 활동. 『민족연구』, 28: 29-54.
- 안정국. 2008. 한국 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연결망. 『한국중동학회논총』, 29(1): 67-93.
- 유명기. 1995.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4: 145-181.
- 윤석오, 박명호, 권장수. 2005.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집』, 15(2): 221-259.
- 조석주. 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방안-외국인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3): 3-46.
- 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45-269.
- 한국산업인력공단. 2007.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상담사례집』.
- 행정안전부. 2006.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추진 지침』. 2006.8.
- Durkheim, E. 1951[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 J. A Spaulding. New York: Free Press.

- Fredson, E. 1960. Client Control and Medical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5, 374-382.
- Goldlust, J. & A. H. Richmond. 1974. "A Multivariate Model of Immigrant Adaptation." *Interactional Migration Review*, 8: 193-225.
- Hernández, P. S., C. Pozo., & M. E. Alonso. 2004. "The Role of Informal Social Support in Needs Assessment: Proposal and Application of a Model to Assess Immigrants' Needs in the South of Spai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284- 298.
- Israel, B. A. & K. A. Rounds. 1987.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in William B. Ward(ed.)." *Advances in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Greenwich: JAI Press INC.
- Kazempur, A. 2006. "The Market Value of Friendship: Social Networks of Immigrants." *Canadian Ethnic Studies*, 38. Issue.
- Lynam, M. J. 1985. "Support Networks Developed by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1: 327-333.
- Marsh, D. & R. Rhodes. 1991.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Oxford: Clarendon.
- McCarthy, A. 2005. "'Bands of Fellowship': The Role of 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Networks Among Irish Migrants in New Zealand, 1861-1911." *Immigrant & Minorities*, 23(2-3): 339-358.
- May, K. M. 1992. "Middle-Eastern Immigrant Parents, Social Network and Help-Seeking for Child Health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905-912.
- Portes, A. 1995. "Children of Immigrants: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Consequence. In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i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ed. A. Portes, 248-279. New York: Russell Sage.
- Suchman E. A. 1965. "Social Pattern of Illness and Medical Care."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r*, 6: 2-16.
- Tindall, D. B. & Wellman, B. 2001. "Canada as Social Structure: Social Network Analysis and Canadian Sociology."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6(3): 265-298.
- 式部 信. 1996. 定住化の 社會經濟學. 『日本社會と 移民』. 伊豫谷登士翁, 杉原 達 共編. 明石書店.
- 『조선닷컴』. 2008. 한국말밖에 모르는 2세대들 추방되면 그곳서도 이방인, 7월 10일.
-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자료. 2008.
- 부산시 노사정책과 내부자료. 2008.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홈페이지. <www.kpmf.org>.